



제 2019-165호

중국

중국 최대 흥행작 ‘유랑지구’ 저작권침해사건 1심 판결 나와

북경사무소

■ 현황

- ‘유랑지구(流浪地球)’, ‘렴정풍운(廉政风云)’ 등 흥행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피고인 천모(陈某), 림모(林某), 라이모(赖某) 등 8인의 저작권 침해 1심 형사사건 재판이 지난 20일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(上海市第三中级人民法院)에서 이뤄짐
- 아래에서는 동 사건의 개요를 살펴봄

■ 주요 내용

- 2017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, 피고인 천 모 씨는 외국인의 위탁을 받고 피고인 림모, 라이모 등 7인을 고용한 후 QQ 채팅을 이용한 분업방식으로 ‘최쾌자원망(最快资源网)’, ‘131자원망(131资源网)’, ‘156자원망(156资源网)’, ‘극속운채집망(极速云采集网)’ 등 불법 동영상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해적판 영상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전송했으며, 이와 동시에 동영상을 통한 광고 방식으로 해외 도박사이트 주소와 링크를 제공해서 약 1,250만 위안(한화 약 21억 원)의 불법수익을 올림



- 동 사안은 외국인과의 상호 연계하여 대량의 서버를 임대해 영상저작물 약 2만 건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으로, 침해된 영상물에는 올해 춘절 최고의 흥행작 ‘유랑지구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, 해외 다수 권리자의 저작권도 침해한 사안으로 중국은 물론 해외의 많은 국가가 큰 관심을 가진 사안임
- 재판과정 중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,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인 천모에게는 유기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0만 위안(한화 약 8천만 원), 이외의 피고인들에게는 범행 정황에 근거하여 유기징역 2년에서 10개월 등의 실형과 동시에 17만 위안에서 2만 위안(한화 약 2천8백만 원에서 335만 원)의 벌금을 각각 부과함

■ 평가

-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물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불법 동영상사이트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. 최근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와 다양한 기술조치를 이용하여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보다 단속에 큰 어려움이 있음. 문제는 이러한 불법 동영상사이트를 통해서 단기간 내에 벌어들일 수 있는 광고수익 등이 많으므로 쉽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 이에 중국법원은 최근 형법상 저작권 침해죄를 적용하여 관련자를 엄벌하고 있음
-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무료로 시청하거나 실시간 감상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어 우리 권리자와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

■ 출처

- 국가판권국망(国家版权局网)
- <http://www.ncac.gov.cn/chinacopyright/contents/4509/407853.html>